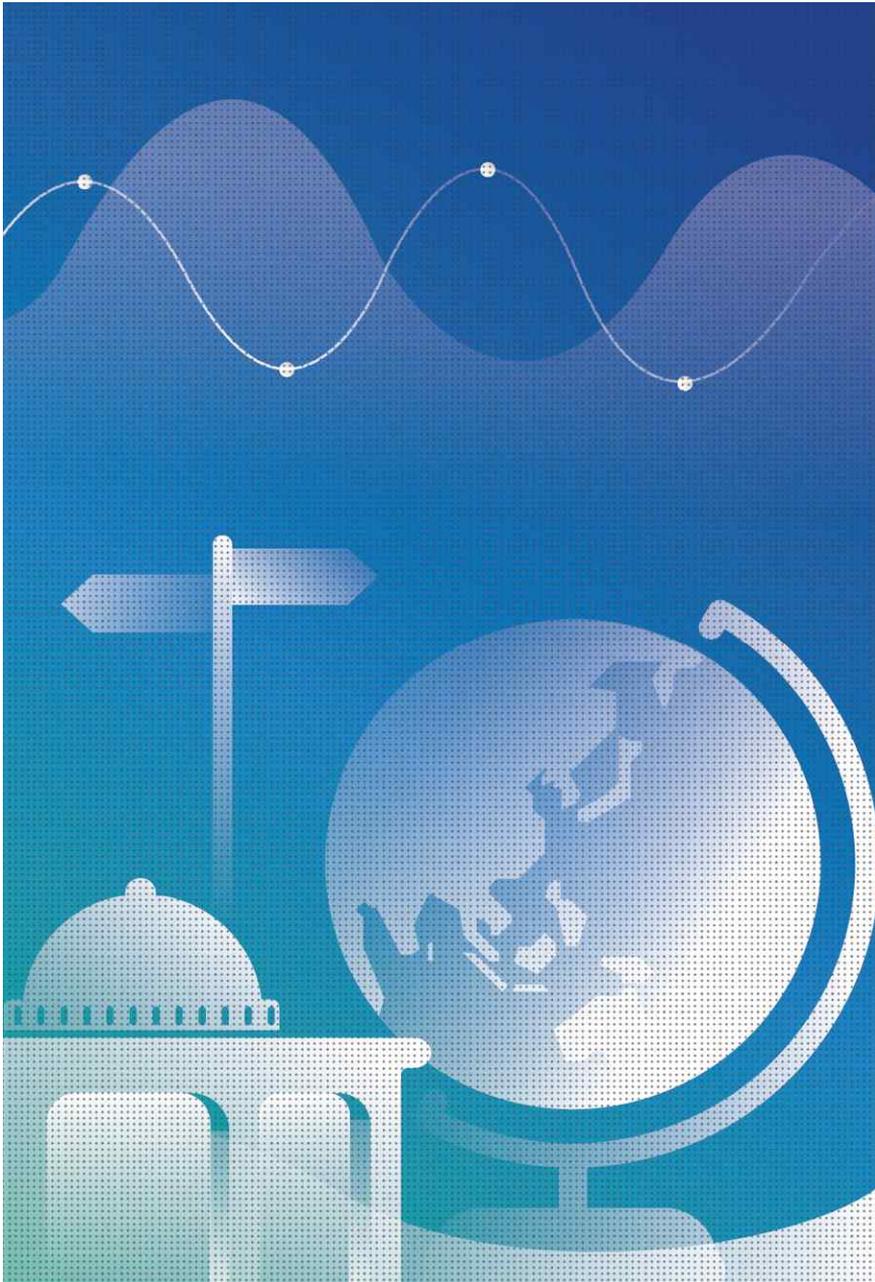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2-지역이슈-17(2022.10)

우리나라의 대 중양아시아 개발협력 현황과 협력 확대 방안



CONTENTS

- I. 중양아시아 5개국의 개발협력 수요
- II. 우리나라의 대 중양아시아 개발협력의 특징
- III. 우리나라의 대 중양아시아 개발협력 현황
- IV. 대 중양아시아 개발협력의 성과 및 협력 확대 방안

작성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2-3603)
ykj@koreaexim.go.kr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요약 >

I. 중앙아시아 5개국의 개발협력 수요

- 2021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전체 규모는 28.6억 달러로 29개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9개 회원국 중 1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6%로 25위에 그쳤음.
-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는 DAC 가입 첫해인 2010년 11.7억 달러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에는 2.4배인 28.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 수요)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세계은행 기준 상위 중소득국(UMIC)인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하위 중소득국(LMIC)인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5개국이 위치하고 있음.
- 취약한 경제 및 사회 인프라, 부패, 산업 발전 필요성, 현대화로 인한 문제 해결 등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경제협력 수요가 높음.
- (기존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소득수준이 낮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는 다자간 ODA 지원 비중이 높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양자간 ODA 비중이 높음. 우즈베키스탄은 양자간 ODA와 다자간 ODA의 비중이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됨.

II.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특징

-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방향)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은 1992년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국교 수립 후 시작되어, 1990년대 중반부터 30여년 동안 발전해 왔음.
- 1995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KOICA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이들 두 국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개발협력이 추진되었고, 2015년 키르기즈에 KOICA 사무소가 개설되며 중앙아시아와의 ODA 협력이 다변화됨. 또한 2022년에는 타지키스탄에 KOICA 사무소가 개설됨.
- (중점협력국) 2021년 1월 제3기 중점협력국에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이 선정되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점협력국이 1기와 2기의 1개국(우즈베키스탄)에서 3개국으로 증가함.
-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은 2021년 처음으로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어 향후 이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우즈베키스탄) 한국의 ODA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된 2011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중점협력국으로 연속으로 지정되어, 중앙아시아 최대의 협력 상대국으로 부상하였음.

Ⅲ.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현황

- (전체 현황) 우리나라의 ODA 사업이 본격화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아시아에 대한 ODA 총액은 4억 4,509만 달러이며, 유상지원은 1억 5,609만 달러(35.1%) 무상지원은 2억 8,900만 달러(64.9%) 규모임.
- 대 중앙아시아 ODA는 2015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2019년에는 연도별 최대 규모인 8,759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국가별 현황) 국가별 ODA는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많은 규모로 중앙아시아 ODA의 78.1%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키르기즈가 13.0%를 기록하고 있음.
- (DAC와의 비교) DAC 회원국의 대 중앙아시아 ODA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1~15년 중 4.46%, 2016~20년 중 7.7%를 기록하였음.
- 2011~20년 중 DAC 회원국의 ODA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평균 1.33%이나, DAC의 대 중앙아시아 ODA에서 우리나라의 지원 비중은 평균 6.07%를 기록하였음. 이처럼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ODA 비중이 DAC 평균 대비 높으며, 우리나라의 전체 ODA에서도 중앙아시아의 지원 비중이 점차 증가 추세임.
- KOICA의 중앙아시아 국가별 무상지원 협력(1992~2020년)에서 대 중앙아시아 무상지원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무상지원의 3.39%를 기록함. 우즈베키스탄이 2.0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키르기즈가 0.64%를 기록하고 있음.
- 정책지원 사업의 하나인 KSP, EIPP 사업은 경제정책, 금융정책, 산업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Ⅳ. 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성과 및 협력 확대 방안

-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은 경제특구 운영, 국립아동병원 설립, 직업훈련센터 설립, 농업 및 섬유 기술센터 설립 등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등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IT와 연계한 협력 사업, 보건 의료 부문의 협력, 시민사회 발전 등의 부문에서 협력이 가능하며, 기존의 주요 협력부문인 직업훈련과 전문 분야의 인력양성 등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3기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된 타지키스탄에 2022년 KOICA 사무소가 개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타지키스탄과의 기술인력 양성, 수자원 관리, 농업 개혁 등 현지의 수요가 많은 부문에서 협력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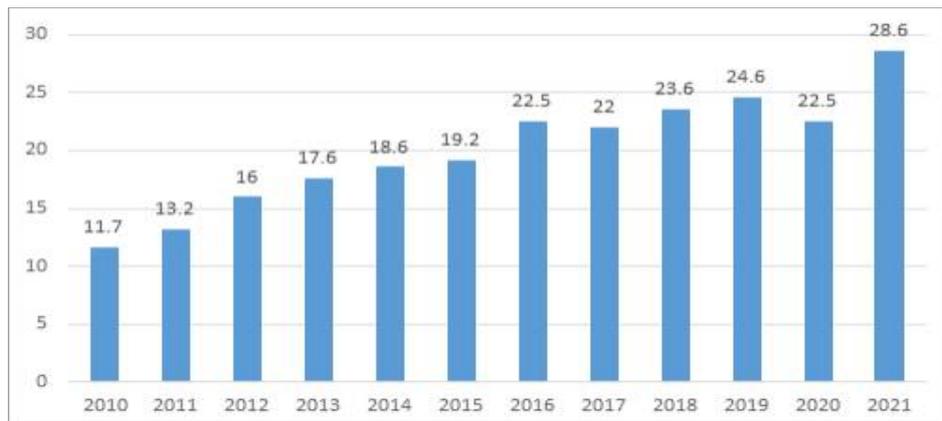


I. 중남아시아 5개국의 개발협력 수요

우리나라의 ODA 현황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전체 규모는 28.6억 달러로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29개 회원국 가운데 15위를 기록하였으며, 국민총소득 (GNI) 대비 ODA 비율은 0.16%로 25위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005년에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9년에 10억 달러, 2016년에 20억 달러를 돌파하였음.
-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DAC 가입 첫해인 2010년* 11.7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2.4배인 28.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은 2010년 1월 DAC에 가입하고 7월 국제개발협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때부터 중남아시아에 대한 ODA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2018년 0.14%에서 2019년 0.15%, 2021년 0.16%로 상승 추세에 있으나, 아직은 2021년 기준 DAC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 수준에 그쳐 지속적인 상승이 필요함.
- 2021년 기준 양자간 ODA는 75.1%로 다자간 ODA(24.9%)의 약 3배이며, 양자간 ODA 중 무상원조는 63.7%로 유상원조(36.3%)의 약 1.8배임.

[그림 1]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규모(억 달러)



자료: OECD D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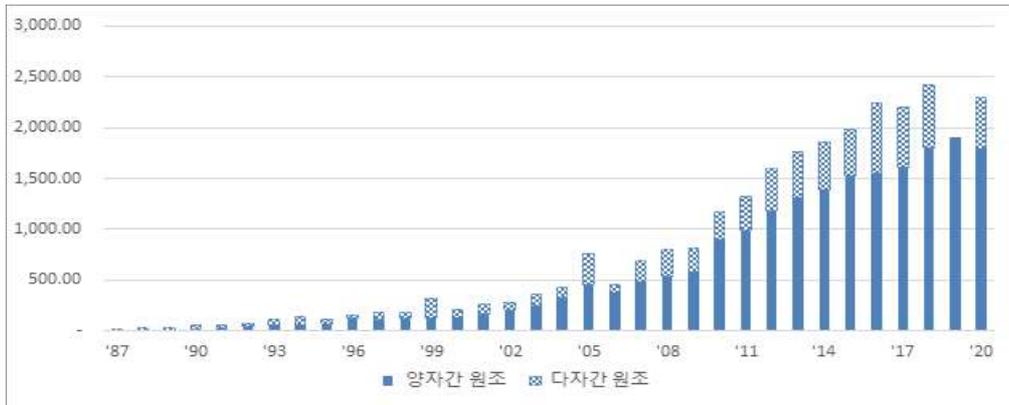
[표 1] 2021년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백만 달러)

구분	2020년	2021년	비중(%)
ODA	2,250	2,855	100.0
양자간 ODA	1,751	2,145	75.1
(무상원조)	(1,155)	(1,365)	(63.7)
(유상원조)	(597)	(780)	(36.3)
다자간 ODA	499	710	24.9

자료: 국무조정실 국가개발협력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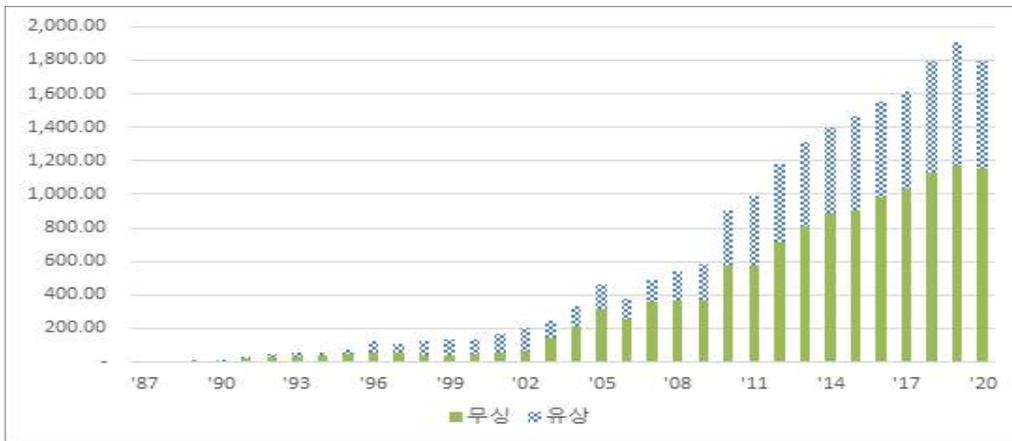


[그림 2] 우리나라의 ODA: 양자간 및 다자간 구분(1987~2020년, 백만 달러)



자료: EDCF 통계보고서

[그림 3] 우리나라의 ODA: 유상 및 무상 구분(1987~2020년, 백만 달러)



자료: EDCF 통계보고서

[표 2] OECD DAC 회원국 ODA 지원 규모(2021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규모	GNI 대비	순위	국가	규모	GNI 대비
1	미국	42,311	0.18	16	벨기에	2,571	0.46
2	독일	32,232	0.74	17	오스트리아	1,460	0.31
3	일본	17,619	0.34	18	핀란드	1,436	0.47
4	영국	15,814	0.50	19	아일랜드	1,169	0.31
5	프랑스	15,448	0.52	20	폴란드	952	0.15
6	캐나다	6,271	0.32	21	뉴질랜드	681	0.28
7	이탈리아	6,017	0.28	22	룩셈부르크	539	0.99
8	스웨덴	5,927	0.92	23	헝가리	455	0.29
9	네덜란드	5,288	0.52	24	포르투갈	450	0.18
10	노르웨이	4,673	0.93	25	체코	362	0.23
11	스위스	3,927	0.51	26	그리스	264	0.12
12	스페인	3,542	0.25	27	슬로바키아	151	0.13
13	호주	3,444	0.22	28	슬로베니아	115	0.19
14	덴마크	2,874	0.70	29	아이슬란드	72	0.27
15	한국	2,855	0.16				

자료: OECD DAC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적 특징과 개발협력 수요

- (소득별 국가구분)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세계은행의 소득별 국가분류에서 2개의 상위 중소득국(UMIC)과 3개의 하위 중소득국(LMIC)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있음.¹⁾
-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자원 수출국으로 세계은행의 상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됨. 반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는 세계은행의 하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됨.
- (취약한 경제 인프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유라시아 내륙 지역에 위치하여 물류환경이 열악하며, 소련 해체 이후의 투자 부진으로 다수의 경제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음.
- 세계은행의 국제물류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국가별 순위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은 비교 대상 160개국 중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카자흐스탄이 71위, 우즈베키스탄이 99위로 100위 이내를 기록하고 있으나, 키르기즈는 108위, 투르크메니스탄은 126위, 타지키스탄은 134위로 매우 열악한 물류 인프라 순위를 기록함.

[표 3]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순위

국가명	종합순위	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수송	물류역량	물류추적	적시성
카자흐스탄	71	65	81	84	90	83	50
우즈베키스탄	99	140	77	120	88	90	91
키르기즈	108	55	103	138	114	99	106
투르크메니스탄	126	111	117	136	120	107	130
타지키스탄	134	150	127	133	116	131	104

자료: 세계은행(2018).

- (취약한 사회 인프라) 구소련의 체제전환국들인 중앙아시아 5개국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독립하였으며, 독립 이후 1990년대의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 교육, 보건 등 사회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진하였음. 이에 따라 사회 인프라 부문에 대한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임.
- (부패) 중앙아시아 5개국은 사회부패지수 등에서 전 세계 국가들 중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 협력 수요가 있음.
- 2021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세계 180개 평가대상국 중 카자흐스탄 102위, 우즈베키스탄 140위, 키르기즈 144위, 타지키스탄 150위, 투르크메니스탄 169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산업 발전의 필요성)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농업과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요 산업인 농업의 현대화와 섬유산업의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부문들에서 외국과의 기술협력이 필요함.
- (현대화에 따른 문제 해결)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도시의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크며 이를 위해 관련 부문에서 기술력을 가진 외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함.

1) 2021년 세계은행 기준의 하위 중소득국은 1인당 소득(GNI) 1,046~4,095달러, 상위 중소득국은 4,096~12,695달러로 구분됨. <https://blogs.worldbank.org>



중앙아시아 5개국의 기존 개발협력 양상

- (수원국 특징)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에는 다자간 ODA 지원 비중이 높으며, 소득이 높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양자간 ODA 지원 비중이 높음. 우즈베키스탄은 다자간 ODA와 양자간 ODA 지원 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됨.
- 카자흐스탄은 경제발전에 따라 2010년 이후 ODA 지원규모가 크게 감소한 반면,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는 2010년 이후 ODA 지원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음.
- 특히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지원국 특징) 미국과 일본의 지원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일본의 지원 비중이 가장 높음.
- 국가별 주요 지원국은 카자흐스탄에는 미국·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에는 일본·미국·독일, 키르기즈에는 튀르키예·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은 미국, 타지키스탄에는 미국·독일 등임.²⁾
- 독일은 50개 개발협력 중점대상국에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는 직업교육,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산림개발, 키르기즈에는 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일본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에 국제협력기구(JICA)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에는 일본센터(Japan Center)를 설립하여 스타트업 지원, 컴퓨터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³⁾
-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ODA 지원은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2010년대 중반 이후 오바마 및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ODA 지원 규모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⁴⁾

2) <https://cabar.asia/en>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앙아시아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신협력 방향』. 2017. 73~78쪽.

4) 미국의 정책에서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정책 추진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따라 향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II.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특징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ODA 정책 방향

-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방향)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은 1990년대 중반부터 30여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음.
- 1990년대 : 우리나라는 소련 해체 직후인 1992년 중앙아시아 5개국과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1995년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KOICA 사무소를 개설하였음.
- 2000년대 : 2007년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외교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하여, 2007년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무상협력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였음.
- 2010년대 : 2011년에는 카자흐스탄의 KOICA 사무소가 철수되고, 2015년에는 키르기즈에 KOICA 사무소가 개설되며 중앙아시아의 ODA 협력이 다변화됨. 2010년과 2015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중점협력국으로 연이어 지정되며 중앙아시아 최대의 개발협력 상대국으로 부상함.
- 2020년대 : 3기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타지키스탄에 중앙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KOICA 사무소가 개설되며,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중점협력국) 우리 정부가 2021년 1월 선정한 제3기 중점협력국에는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이 포함되어 중앙아시아 중점협력국이 1~2기의 1개국에서 3개국으로 증가함.
- 우리 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로 중점 개발협력국을 지정하여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2011~15년 제1기 26개 중점협력국을 지정하였으며, 2016~20년 제2기에는 24개국을 지정한 바 있음. 2021~25년의 제3기에는 27개국을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였음.⁵⁾

[표 4]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 ODA 중점협력국

구분	1기(2011~15)	2기(2016~20)	3기(2021~25)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기타 유라시아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국가별 ODA 협력의 특징

- (카자흐스탄) 우리 정부는 1995년에 KOICA 사무소를 개소하였으나,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에 따라 2011년에 철수하였음. 이후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ODA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DAC 회원국의 카자흐스탄 지원 규모도 2010년 이후 감소하였음.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러시아, 중국 등으로의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가 발전하고 있음.

5) 우리 정부는 수원국의 발전수준, 경제·외교적 협력 실적, ODA 수행환경 및 경제·외교·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평가하여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있으며,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여 집중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우리 정부의 ODA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된 2011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중앙아시아 최대의 협력 상대국으로 부상하였음.
- 우즈베키스탄에는 대우자동차, 대우면방직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진출하여 경제협력 성과를 거두며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협력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2018년 이후 WTO 가입을 추진하는 등 경제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협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키르기즈) 2015년에 KOICA 사무소가 개설된 이후 개발협력이 확대되어 왔음.
- 키르기즈는 1988년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WTO에 가입한 국가로 경제개방을 추진해 왔으며,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시민사회가 발전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개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타지키스탄) 2021년 3기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향후 우리나라와의 개발협력이 과거에 비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1990년대 후반 내전이 종료된 이후 국제협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주변국과의 국경 분쟁 등으로 국제사회와의 개발협력이 확대되지는 않았음.
- 2021년에는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고, 2022년에는 KOICA 사무소가 개설되어 향후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투르크메니스탄)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국으로 부상하며 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며, 점진적인 경제개방 추진에 따라 향후 개발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세계 4번째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자원 개발과 중국으로의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2020년 7월에는 WTO 옵저버 자격을 획득하며 기존의 다소 폐쇄적인 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향후 대외경제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투르크메니스탄과 여러 부문에서 기술 및 인적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표 5]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국가별 ODA 협력 특징

국가	특징
카자흐스탄	- 에너지 자원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따라 ODA 지원은 감소
키르기즈	-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WTO에 가입하고 경제개방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 다음으로 긴밀한 개발협력 추진 중 - 2021년 3기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어 향후 협력 확대 전망
타지키스탄	- 2021년 3기 중점협력국으로 선정과 2022년 KOICA 사무소 개설로 향후 협력 확대 전망
투르크메니스탄	- 에너지 자원 수출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협력 잠재력 보유
우즈베키스탄	- 중앙아시아 최대 협력국으로 세 차례 중점협력국으로 선정 - 다수의 우리 기업이 현지에 진출함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적극적이며,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 추진 성과를 거두고 있음.



Ⅲ.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현황

1. 중앙아시아 ODA 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OD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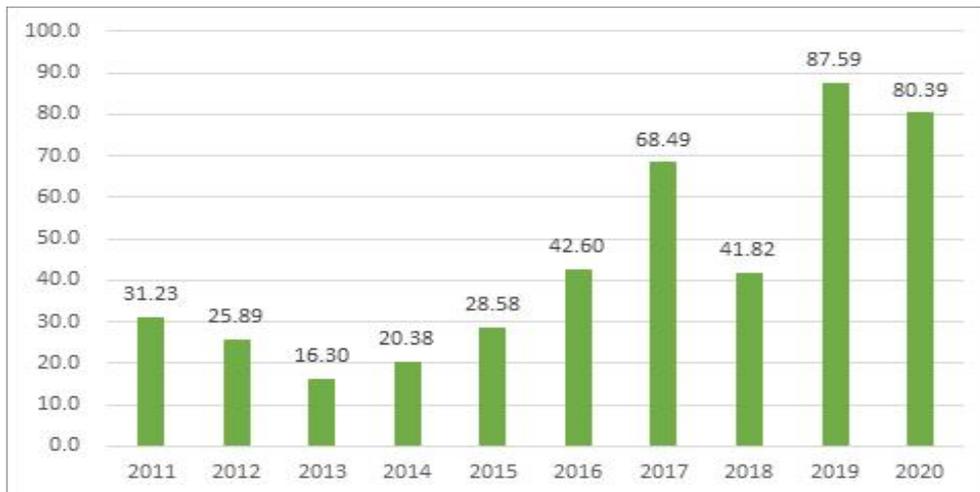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ODA 사업이 본격화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ODA 총액은 4억 4,509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⁶⁾ 연도별로는 2015년 이후 증가하여 2019년에 최대 규모인 8,759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국가별로는 우즈베키스탄이 78.1%, 키르기즈가 13.0%를 점유하였음.
- 유상지원액은 1억 5,609만 달러(35.1%)이며, 무상협력은 2억 8,900만 달러(64.9%)로 무상협력 비중이 전체 우리나라 ODA 무상협력 비중(63.7%)을 다소 상회함.

[그림 4]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국가별 ODA(2011~20년, 백만 달러)



자료: OECD 통계

[그림 5]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연도별 ODA(2011~20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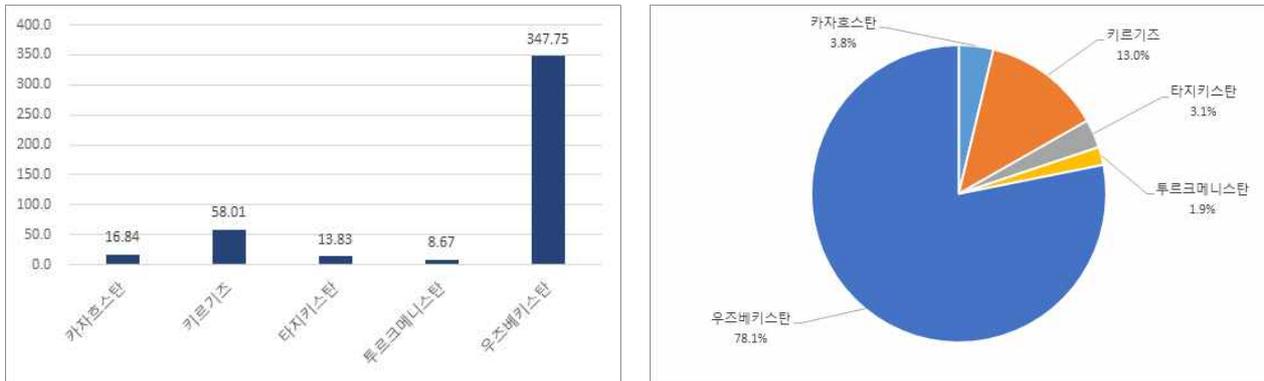


자료: OECD 통계

6) OECD 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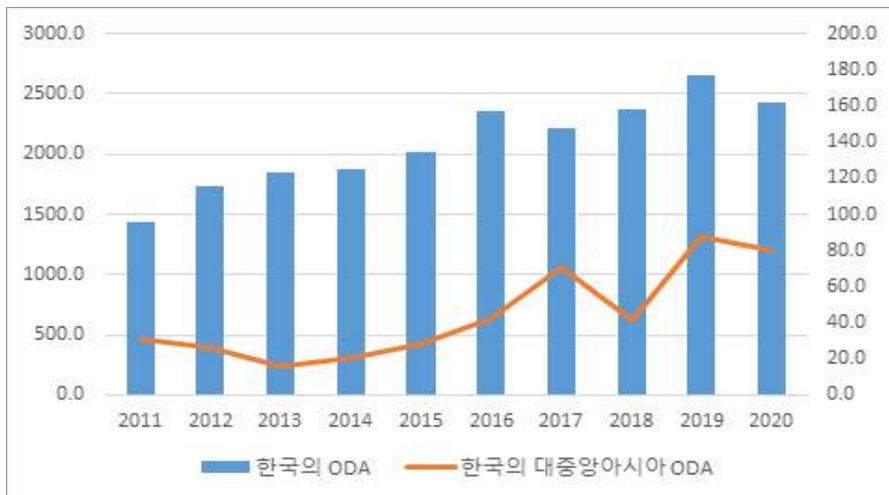


[그림 6]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국가별 ODA 비교(2011~20년)
지원금액(백만 달러) 지원금액 비중(%)



자료: <https://stats.oecd.org>

[그림 7]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와 대 중앙아시아 ODA 지원규모 추이(2011~20년, 백만 달러)



자료: <https://stats.oecd.org>

DAC와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ODA 비교

- DAC 회원국의 대 중앙아시아 ODA 지원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비중은 4.46%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비중은 7.7%를 기록하였음.
- DAC 내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별 지원 비중은 우즈베키스탄이 11.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 7.6%, 카자흐스탄 2.5%, 키르기즈 3.6%, 타지키스탄 1.0%의 순서임.

[표 6] DAC의 대 중앙아시아 ODA에서 우리나라의 비중(2011~2020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간 평균
6.3	5.1	2.9	3.6	4.4	6.7	9.3	6.3	8.2	8.0	8.5

자료: OECD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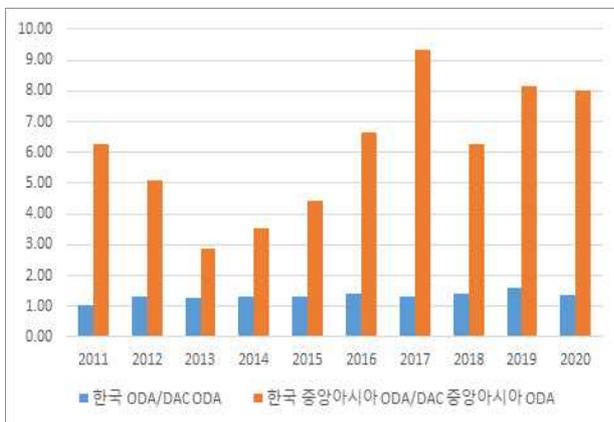
[표 7] DAC 회원국의 대 중앙아시아 국가별 ODA 중에서 우리나라의 비중(2011~2020년, %)

국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평균
비중	2.5	3.6	1.0	7.6	11.1	5.2

자료: OECD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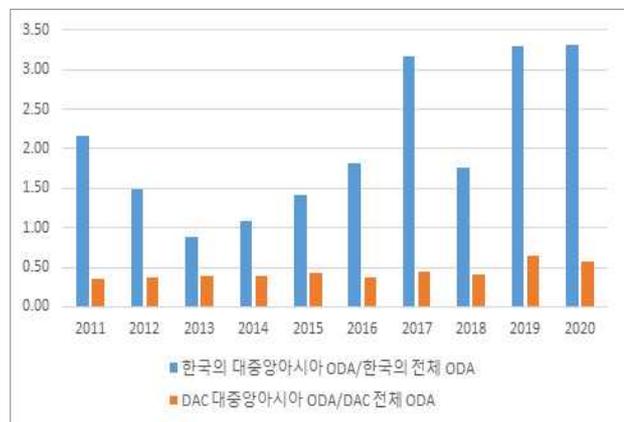
-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 전체와 비교할 때 중앙아시아에 대한 ODA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우리나라의 전체 ODA에서 중앙아시아의 지원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2011~20년 중 DAC의 ODA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33%이나, DAC의 대 중앙아시아 ODA에서 우리나라의 지원 비중은 평균 6.07%를 기록하였음.
- 2011~20년 중 우리나라의 ODA에서 대 중앙아시아 지원 비중은 평균 2.04%로, DAC의 대 중앙아시아 지원 평균 비중(0.44%)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ODA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2011년 2.17%에서 2020년에는 3.32%로 상승하였음.

[그림 8] DAC에서 우리나라의 ODA 비중 및 대 중앙아시아 ODA 비중 비교(%)



자료: <https://stats.oecd.org>

[그림 9] 우리나라 및 DAC의 대 중앙아시아 ODA 비중 비교(%)



자료: <https://stats.oecd.org>

[그림 8] 우리나라와 DAC의 대 중앙아시아 ODA 비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한국 ODA / DAC ODA	1.02	1.29	1.27	1.29	1.32	1.40	1.30	1.43	1.60	1.37	1.33
한국의 중앙아시아 ODA / DAC의 중앙아시아 ODA	6.28	5.07	2.89	3.55	4.44	6.65	9.32	6.28	8.15	8.02	6.07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ODA / 한국 전체 ODA	2.17	1.49	0.88	1.09	1.42	1.81	3.18	1.76	3.30	3.32	2.04
DAC 대중앙아시아 ODA / DAC 전체 ODA	0.35	0.38	0.39	0.40	0.42	0.38	0.44	0.40	0.65	0.57	0.44

자료: <https://stats.oecd.org>

-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ODA 중 국가별 비중은 2011~20년 중 우즈베키스탄이 매년 60~80%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점유하였으며, 다음으로 키르기즈가 매년 10~20%의 비중을 점유함.
- DAC의 국가별 비중은 2015년 이전까지는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이 가장 높았으나, 2015년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가 급격히 증가하며 높은 비중을 점유함. 2019~20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비중이 65%를 상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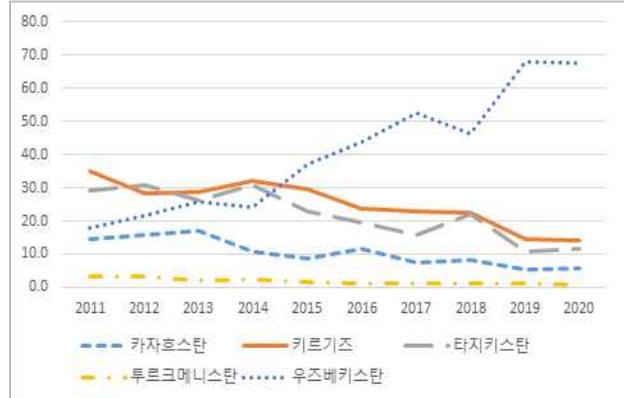
- 이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DAC 차원에서도 중양아시아 국가들 중에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그림 10] 우리나라의 대 중양아시아 국가별 ODA 비중(%)



자료: <https://stats.oecd.org>

[그림 11] DAC의 대 중양아시아 국가별 ODA 비중 (%)



자료: <https://stats.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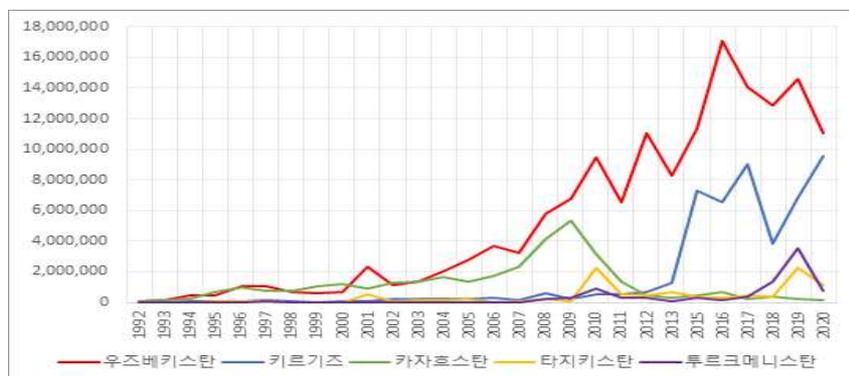
- 1992~2020년 중 우리나라의 중양아시아 국가별 무상지원은 우즈베키스탄이 1억 6,334만 달러로 최대 규모이며, 그 다음으로 키르기즈 5,044만 달러, 카자흐스탄 3,401만 달러, 타지키스탄 1,112만 달러, 투르크메니스탄 877만 달러 규모임.
- 대 중양아시아 무상지원(2억 6,768만 달러)은 우리나라 전체 무상지원(78억 9,001만 달러)의 3.39%를 기록함. 우즈베키스탄이 2.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키르기즈가 0.64%를 점유하고 있음.

[표 9] 한국의 대 중양아시아 무상지원 비중 (1992~2020)

국가	비중(%)
우즈베키스탄	2.07
키르기즈	0.64
카자흐스탄	0.43
타지키스탄	0.14
투르크메니스탄	0.11
중양아시아 전체	3.39

자료: <https://stat.koica.go.kr>

[그림 12] 우리나라의 대 중양아시아 국가별 무상지원 규모(1992~2020년, 달러)



자료: <https://stat.koica.go.kr>



- (국가별 EDCF 사업)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금(EDCF)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이 집행액 기준 13번째 EDCF 지원대상국으로 9건이 집행되었으며, 전체 EDCF 집행액의 2.4%를 기록하고 있음. 이외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에 1건씩의 사업이 집행된 바 있음.

[표 10] 중앙아시아 EDCF 사업(2021년 말 기준, 백만 원)

집행액				대출잔액			
국가	건수	금액	비중	국가	건수	금액	비중
우즈베키스탄	9	276,232	2.4%	우즈베키스탄	8	217,496	2.2%
카자흐스탄	1	16,140	0.1%	키르기즈	1	15,800	0.2%
키르기즈	1	16,113	0.1%				

자료: EDCF 통계보고서

2. 국가별 ODA 현황)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최대 ODA 대상국으로 2010년, 2015년, 2020년에 각각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었음.
-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 ODA 순위(순지출 기준)에서 2017년 5위(5,404만 달러), 2019년 8위(6,461만 달러), 2020년 9위(5,374만 달러)를 기록하며 주요 ODA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⁸⁾
- 2010년에는 교육, 보건위생, 공공행정 부문, 2015년에는 교육, 수자원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부문이 중점 협력분야로 선정됨. 2020년에는 중점 협력분야로 우즈베키스탄의 미르지오예프 신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개발 분야가 추가되었음.
- 대 우즈베키스탄 ODA 지원액(2010~21년, 순지출 기준) 3억 8,239만 달러 가운데 유상지원은 1억 5,284만 달러(40.0%), 무상지원은 2억 2,955만 달러(60.0%)로 집계됨.⁹⁾
- 유상지원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금(EDCF)의 주요 사업은 직업교육시설 개선, 교육 정보화, 국가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아동병원 건립, 전자정부 통합 데이터센터 건립, 제약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주로 교육, 교통, 보건 부문의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음.
- 2022년 현재 전자정부 통합 데이터센터 건립, 타슈켄트 약학대학 건립, 화학 R&D 센터 건립 등의 EDCF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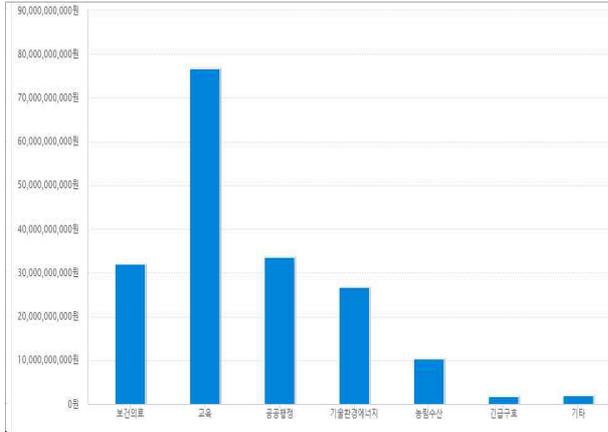
7) 전체 ODA 통계는 우리나라가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2010년 이후의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ODA 통합포털(www.kodaportal.go.kr)의 2010~21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무상 ODA는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수교한 1992년부터 2020년의 KOICA 통계자료(https://stat.koica.go.kr)를 이용하였음.

8) 우즈베키스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ODA 지원국 순위 10위권 내에 포함되지 못하였음. 『2021 ODA 통계자료집』. 국무조정실.

9) www.kodaportal.go.kr



[그림 14] KOICA의 대 우즈베키스탄 지원 부문(1992~2020년)



자료: KOICA 통계조회 서비스

[그림 15]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유/무상지원 비중(2017~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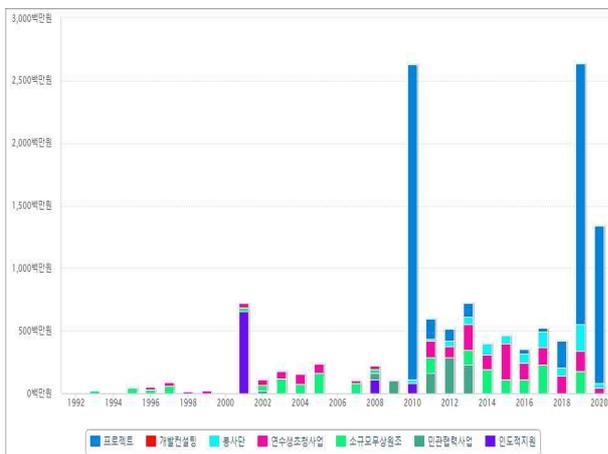


자료: <https://www.oda.go.kr>

타지키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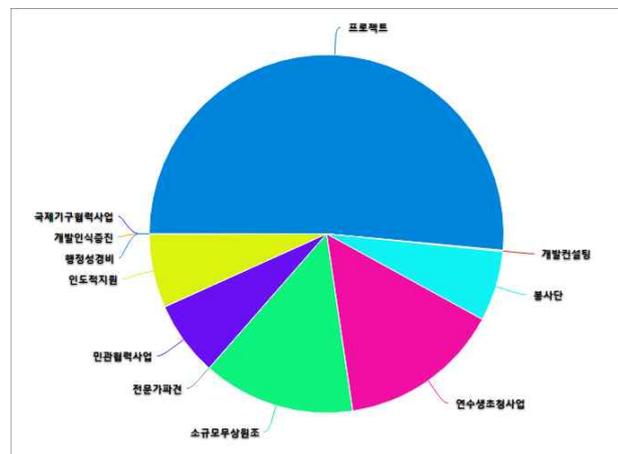
- 대 타지키스탄 ODA 지원액(2010~21년, 순지출 기준)은 2,192만 달러로, 전액 무상지원임.¹¹⁾ 지원기관별로는 KOICA 1,243만 달러, 관세청 459만 달러, 산림청 170만 달러, 교육부 154만 달러로 집계됨.
- KOICA의 1992~2020년 무상지원은 유형별로는 프로젝트 52.1%, 연수생 초청 14.6%, 소규모 무상원조 13.4% 등이며, 부문별 지원액은 기술환경에너지 57.2%, 공공행정 17.6%, 농림수산 10.1%, 긴급구호 6.4%, 보건의료 4.1%, 교육 3.9%를 각각 점유하였음. 사업 건수는 2016~20년가지 매년 프로젝트 1건씩을 기록함.
- 2022년 현재 7건의 연수생 초청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 재정 및 조세정책, 농업 고부가가치, 보건행정,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부문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림 16] KOICA의 대 타지키스탄 지원(1992~2020년)
지원금액



자료: KOICA 통계조회 서비스

지원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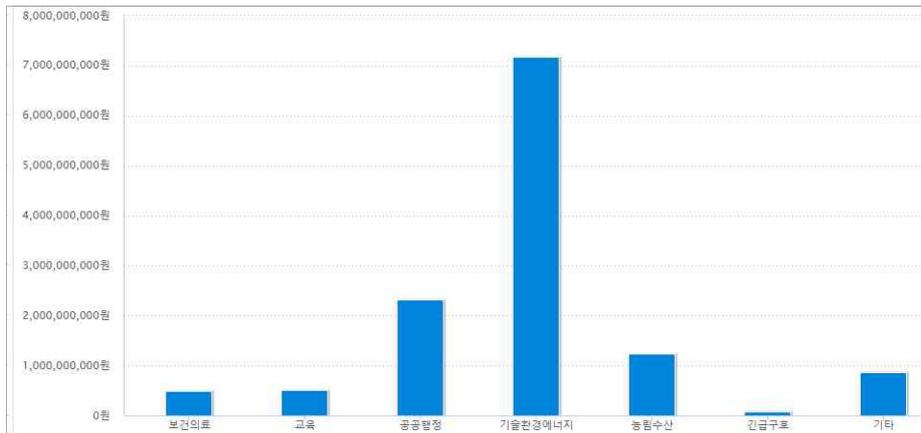


자료: KOICA 통계조회 서비스

11) <https://www.oda.go.kr>



[그림 17] KOICA의 대 타지키스탄 지원 부문(1992~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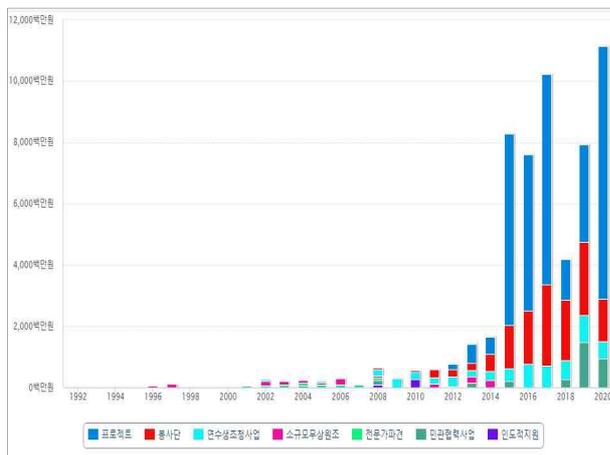


자료: KOICA 통계조회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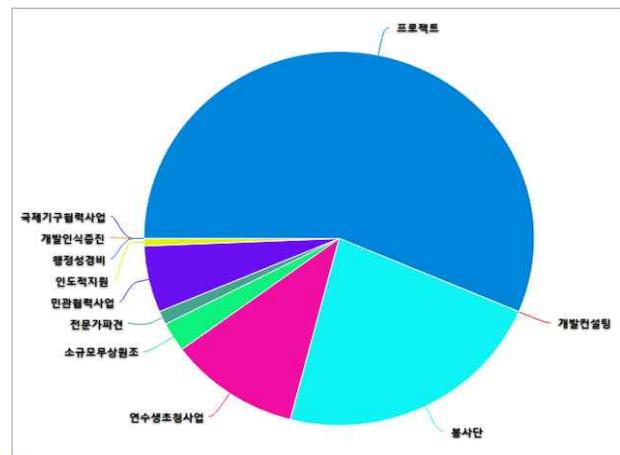
키르기즈

- 대 키르기즈 ODA 지원액(2010~21년, 순지출 기준)은 7,418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지원기관별로는 KOICA 5,955만 달러, 교육부 449만 달러, 농촌진흥청 183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 KOICA의 1992~2020년 무상지원은 유형별로는 프로젝트 56.4%, 봉사단 22.6%, 연수생 초청 10.9%로 각각 집계되었음. 아울러 부문별로는 공공행정에 대한 지원 비중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 농림수산의 순서로 나타남.
- 2022년 현재 국별협력 6건, 연수생 초청사업 15건, 민관협력 4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별협력으로는 농업정책, 지역개발 시범사업, 소방구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축산물안전성 강화 등의 사업이 지원되고 있음. 유상지원 사업으로 국립 감염병원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림 18] KOICA의 대 키르기즈 지원(1992~2020년)
지원금액 지원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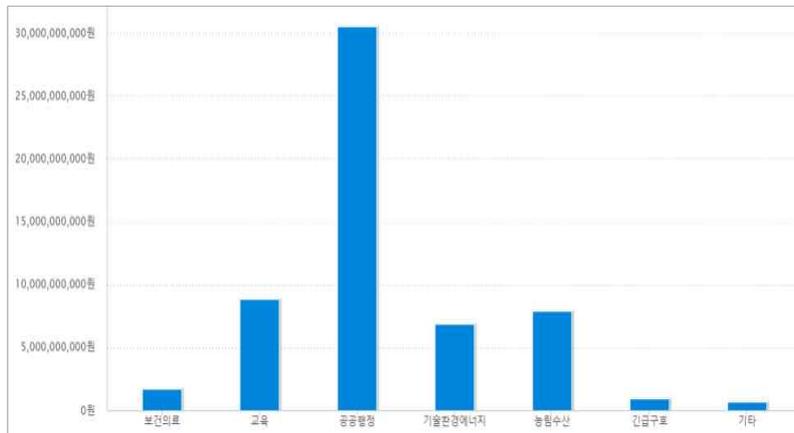
자료: KOICA 통계조회 서비스



자료: KOICA 통계조회 서비스



[그림 19] KOICA의 대 키르기즈 지원 분야(1992~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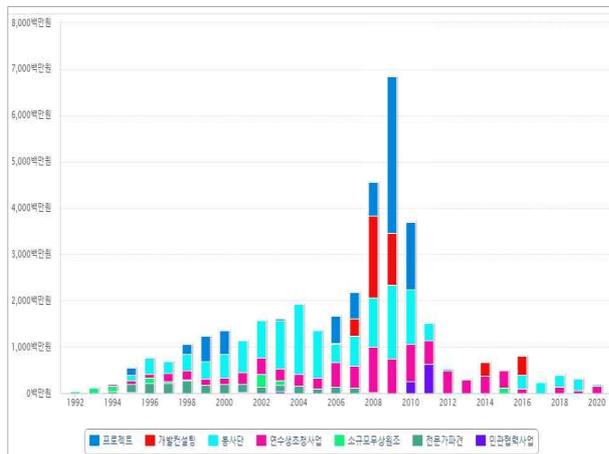


자료: KOICA 통계조회 서비스

카자흐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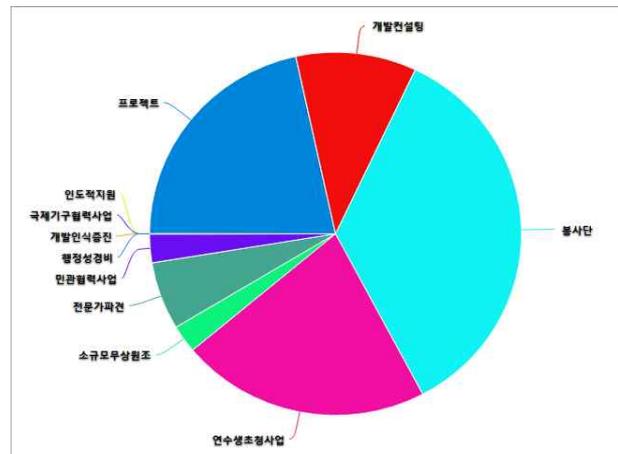
- 대 카자흐스탄 ODA 지원액(2010~21년, 순지출 기준)은 2,191만 달러로, 모두 무상지원임. 지원기관별로는 KOICA 831만 달러, 교육부 492만 달러, 산림청 284만 달러로 집계됨.
- KOICA의 1992~2020년 무상지원은 유형별로는 봉사단 35.2%, 연수생 초청 21.7%, 프로젝트 21.6%, 개발 컨설팅 10.5%로 집계됨. 아울러 부문별로는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이 40%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25.6%)에 대한 지원이 많음.
- 2022년 현재 4건의 연수생 초청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재정 및 조세정책, 항공경영, 농업 등의 부문에서 초청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양국 간에는 부패 개선을 위한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림 20] KOICA의 대 카자흐스탄 지원 (1992~2020년)
지원금액



자료: KOICA 통계조회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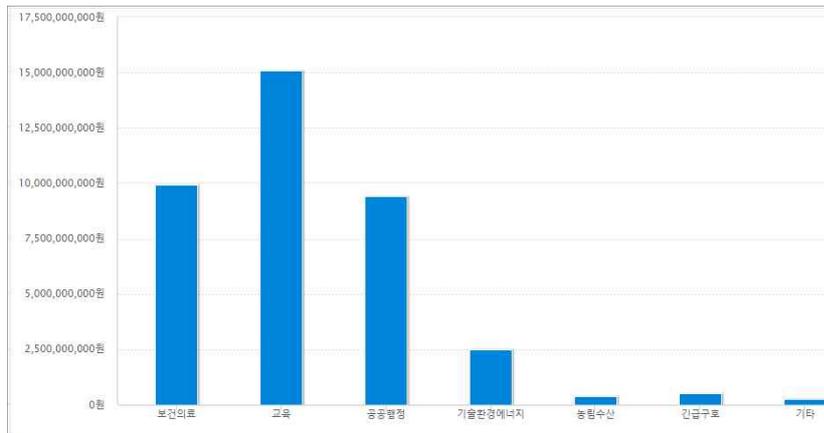
지원유형



자료: KOICA 통계조회 서비스



[그림 21] KOICA의 대 카자흐스탄 지원 부문(1992~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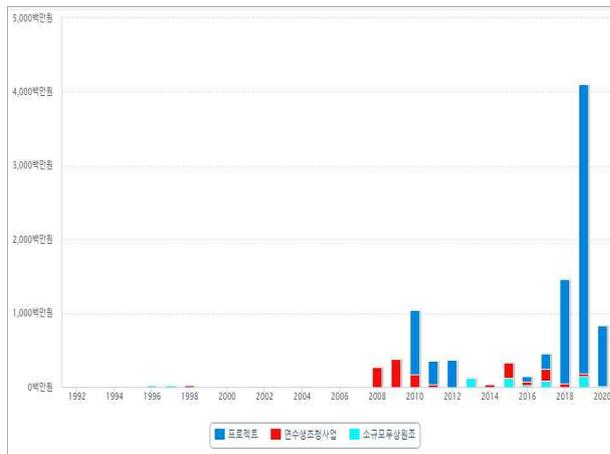


자료: KOICA 통계조회 서비스

투르크메니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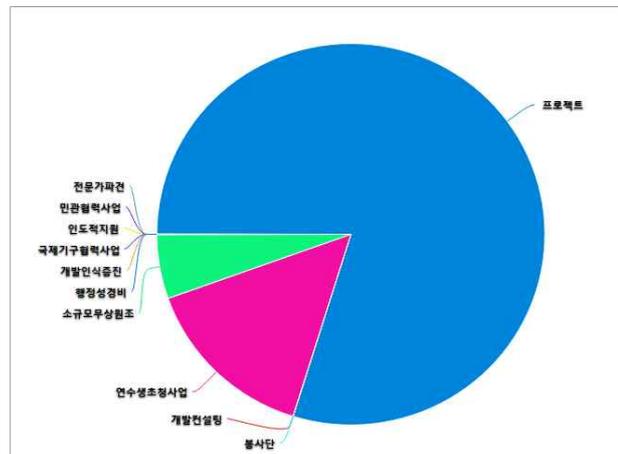
- 대 투르크메니스탄 ODA 지원액(2010~21년, 순지출 기준)은 1,048만 달러이며, 모두 무상지원임. 지원 기관별로는 KOICA 826만 달러, 교육부 101만 달러, 환경부 21만 달러로 집계됨.
- KOICA의 1992~2020년 무상지원은 유형별로는 프로젝트 79.8%, 연수생 초청 14.7%, 소규모 무상원조 5.5%로 집계됨. 아울러 부문별로는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이 7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공공행정에 대한 지원규모가 많음.
- 2022년 현재 1건의 연수생 초청사업(재해위험 경감 부문)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한-투르크메니스탄 산림협력 사업이 논의되고 있음.

[그림 22] 투르크메니스탄 KOICA 지원 (1992~2020년)
지원금액



자료: KOICA 통계조회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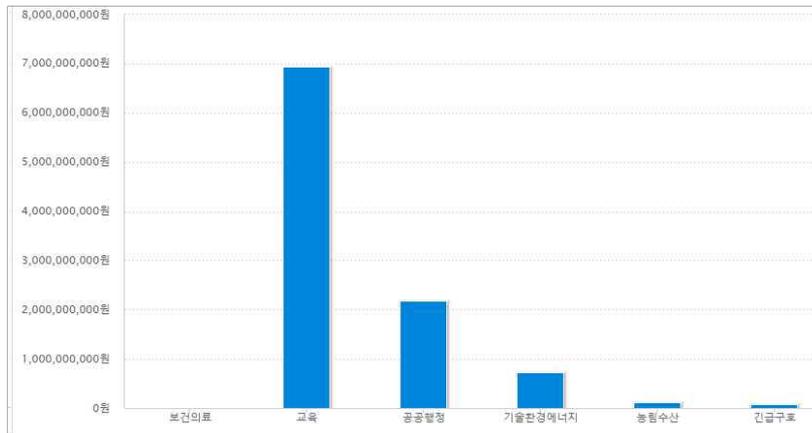
지원유형



자료: KOICA 통계조회 서비스



[그림 23] 투르크메니스탄 KOICA 지원 부문(1992~2020년)



자료: KOICA 통계조회 서비스

3.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지원 사업: KSP, EIPP

개발경험공유(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

- KSP 사업은 우리나라의 부문별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경제발전 계획을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력 수요에 따라 2004년 이후 중앙아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KSP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음.
-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KSP 사업은 제조업 육성, 산업정책 개발, ICT 산업 발전, 교통 현대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함.

[표 12]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

기간	사업명	부문
2004	제조업 육성과 수출 촉진 방안	제조업
2009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설립 정책 자문	경제정책
2010	혁신 기반 및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경제정책
2011	국가 혁신 시스템의 강화 전략	정부 시스템
2012	산업혁신 전략	산업
2013	농업 및 산업기술 혁신 전략	농업, 산업
2014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분석	경제정책
2016	공공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자문	경제정책
2018	안그렌 경제특구 운영지원 방안	산업
	타슈켄트시 대중교통 발전 전략 수립 지원	교통
2022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 자문	경제정책
	경쟁 정책 및 소비자 보호 집행체제 강화	경제정책

자료: KSP(<https://www.ksp.go.kr>)



- 카자흐스탄에 대한 KSP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발전,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정책, 주택보증제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외에도 경제역량강화, 수출진흥기구 역량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됨.

[표 13] 카자흐스탄 KSP 사업

기간	사업명	부문
2009	산업혁신개발계획	산업
2010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발전전략	중소기업
201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및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2012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와 혁신산업개발계획 수립 준비	중소기업
2013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경제정책
2014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은행 자산건전성 향상 및 금융시장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금융
2014	수출진흥기구의 역량강화: 우리나라의 TPO 시스템 벤치마킹	경제정책
2015	은행권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한 부실채권	금융
2015	SDI 구축지원 정책자문	정보통신
2016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주택보증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 중심	금융, 보건
2017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사업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경제정책
2018	주택보증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금융

자료: KSP(<https://www.ksp.go.kr>)

- (키르기즈) 키르기즈에 대한 KSP 사업으로는 재정 및 행정 정책, 보험제도, 인적자원 활용 등의 부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음.

[표 14] 키르기즈 KSP 사업

기간	사업명	부문
2014	경제 및 공공행정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경제정책
2015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개발재원 및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 방안	경제정책
2016	예산제도 및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전략 수립	경제정책
2019	예금보험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금융

자료: KSP(<https://www.ksp.go.kr>)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 KSP 사업의 확대 버전이라 할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¹²⁾은 202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포함되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임.
- 현재 중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EIPP 사업이 진행됨. 이 사업은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 물류, 농기계 산업, 태양광 산업, 상수도 등 IT, 농업, 신재생에너지, 주택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음.

12) EIPP는 양국이 협의하여 협력국의 경제성장과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진출에 도움이 되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전략 수립, 법·제도 정비, 관련 인프라 사업 기획 및 소요 자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3년 이상 집중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기재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4일)



[표 15] 우즈베키스탄 TIPP 사업

기간	사업명	부문
2020~21	안그렌 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ICT
	국가 스마트 물류 전략 수립	물류
	국가 빅데이터 추진 전략 수립	첨단기술
	태양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에너지
	건설 농기계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제조업
2021~22	안그렌 시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첨단기술
	농기계 제조업 육성을 위한 R&D 센터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농업
	태양광 정책자문 및 에너지 저장장치 활용방안 수립	에너지
	안그렌 시 상수도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상수도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설립 방안: 태양광 산업과 농기계 산업 중심	제조업(신재생, 농업)



IV. 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성과 및 협력 확대 방안

1. 개발협력의 주요 성과

경제특구 설립 및 운영 :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경제특구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9년에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운영 방안에 대한 KSP 사업이 추진됨.
- 우리 정부는 KSP 사업을 통해 나보이 FIEZ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코오롱 등 한국 기업들이 FIEZ 내에 투자하였음. 또한 대한항공은 나보이 FIEZ와 연계하여 나보이 공항에 국제 복합물류 센터를 설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병원 건립 및 운영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국립 아동병원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4년부터 추진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2020년 10월 국립 아동병원을 수도 타슈켄트 시에 개원하였음. 사업비는 1억 달러 규모이며, 단순 건축자재를 제외한 대다수의 주요 의료설비 및 장비를 한국산으로 공급하고, 병원 운영 컨설팅과 인력역량 강화 부문에도 한국이 지원하였음.
- 우즈베키스탄은 14세 이하 아동이 전체 인구의 3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영유아 사망률이 OECD 평균의 약 10배에 이르는 등 아동 의료-보건 환경은 열악한 상황으로 아동병원 건립이 이러한 상황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¹³⁾

직업훈련센터 건립 및 운영 : 우즈베키스탄

-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의 기술인력 양성과 실업자에 대한 취업기술 교육을 목적으로 타슈켄트(2012년), 사마르칸트(2016년), 사흐리사브즈(2018년), 페르가나(2022년) 지역에 직업훈련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교육과 함께 실습 기자재, 설비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우르겐치에도 직업훈련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타슈켄트에는 직업훈련 교사 연수를 위한 연수원이 건립 중임.

농업기술센터 건립 및 운영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 우즈베키스탄의 농기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2016년부터 타슈켄트에 조성되기 시작한 농기계 연구개발 센터가 2019년 완공되었음. 우리나라는 농기계 장비와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의 농기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농기계 개량, 기술교류, 합작생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키르기즈에는 2019년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가 개소하였음. 농산물 가공 기반 구축과 가축 개량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농식품 가공을 위하여 한국산 장비를 도입할 계획임.

13) <https://www.odakorea.go.kr>



섬유 테크노파크 건립 및 운영 : 우즈베키스탄

- 섬유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도 타슈켄트에 섬유 관련 기술 개발, 시제품 생산, 교육 및 실험을 담당하는 시설을 갖춘 섬유 테크노파크 건설을 지원하였음.
- 이 테크노파크는 2015년 조성을 시작해 2019년 완공되었으며, 장비와 설비에 대한 지원 이외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임.
- 장기적으로 이 테크노파크를 기반으로 원자재와 소재·제품 간의 연계 밸류체인이 구축되고 우즈베키스탄 섬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대학 역량 강화, 우수인력 양성 정책 등과 연계하여 의학, 농업, 정보통신, 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및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인하대, 부천대, 여주대 등이 분교를 운영하고 있고, 아주대는 현지 대학과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는 고려대, 한국교통대, 충남대, 한동대 등이 참여하고 있음.
- 키르기즈에서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희대가 참여하고 있음.

전자정부 및 관련 사업 추진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 우즈베키스탄에 2020년 전자정부 및 디지털경제협력 센터를 개소하여 전자정부 컨설팅, 시스템 구축, 초청연수 등이 추진됨.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도 개도국 관세행정, 정보이용환경 개선 사업 등이 진행되었음.
- 키르기즈에는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하여 2014~18년 동안 선거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선거개표기 등을 지원하여 투명한 선거제도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2. 향후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협력 확대 방안 모색

보건 의료 부문, 특히 IT와의 연계를 통한 협력

- 코로나19 이후 감염관리 등 감염병 대응 부문에 대한 협력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 의료 부문에서 인력연수, 기술협력, 설비 지원 등 협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보건 의료와 IT 부문을 연계한 헬스케어 등의 사업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됨.

에너지 공급 효율화를 위한 협력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와 IT가 연계된 스마트 전력 시스템 등 에너지 공급 효율화에 대한 수요



가 높으므로 이 부문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기존의 노후화한 에너지 공급망을 개선하는 사업에서도 협력이 유망함.

유-무상 연계 사업 및 민-관 협력사업 확대

- 기존에 추진된 우즈베키스탄 국립 아동병원 건립, 타슈켄트 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건설 등의 사업에서 유-무상 연계 사업이 성과를 거둔 바 있으므로 향후에도 이와 같은 협력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우리의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간의 협력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ODA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사업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경제특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력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및 농가공업, IT 부문의 발전을 위해 경제특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음.
- 기존의 경제특구 정책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는 나보이, 안그렌 등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특구 설립과 발전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등 다른 국가들과도 이 부문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교육 및 인력 양성 부문에서의 협력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으로 산업이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금융, IT 등의 부문에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며, 새로운 기계설비의 도입에 따른 전문 기술인력 양성도 필요함.
- 이를 위해 학교 설비 및 기자재, 여러 분야의 교수인력 및 교재 등을 비롯하여 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협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직업전문교육 부문의 협력도 더욱 확대될 여지가 큼.

KOICA 신규사무소를 통한 협력 확대

- 2022년 6월에 KOICA 신규사무소가 개설된 타지키스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 양성, 학교 교육, 농업 현대화, 수자원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부문에서 협력 수요가 많으며, KOICA 사무소 개설을 통해 이러한 부문들에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관광, 시민사회, 젠더 등 새로운 부문에서의 개발협력 추진 가능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보존 및 개발하여 관광산업으로 발전 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개발 등을 비롯한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이외에 각국의 개혁 및 개방 정책 추진에 따라 시민사회의 발전, 젠더 정책 지원 등의 부문에서도 상호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참 고 문 헌 >

국무조정실. 『2021 ODA 통계자료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남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과제』. 20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남아시아 개발과제와 한-중남아 신협력 방향』. 201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3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2022.05

OECD 통계 <https://stats.oecd.org>

“우즈베키스탄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 기재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4일

ODA 통합홈페이지 <https://www.odakorea.go.kr>

세계은행 <https://lpi.worldbank.org>

KSP <https://www.ksp.go.kr>

KOICA 통계조회 서비스 <https://stat.koica.go.kr>

<https://blogs.worldbank.org>

<https://cabar.asia/en>